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

이상헌¹, 박경민², 손순영^{3*}

¹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Systematic Review of Education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Lee sang hun¹, Park Kyung Min², Shon Soonyoung^{3*}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적고찰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ISS, RISS, NDSL, DBia, nanet을 사용하여 출판된 문헌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검색 후 총 21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자 3인이 코드화한 후 정리하였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중재의 특성은 자녀 대상 연구가 12편 부모 대상 연구가 8편 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1편이었다. 중재프로그램의 속성에서 대다수의 연구가 건강, 반응적 돌봄, 조기교육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영양과 안전 영역을 적용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를 포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다문화역량, 가족역량강화

Abstract This study was a systematic review that aim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21 studies from domestic databases - RISS, KISS, NDSL, DBia, and nanet - were analyzed and the data were compiled and encoded by three researcher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12 programs were developed for children, eight, for parents, and one,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While most intervention programs included topics on health, responsive care, and early education, none included topics on nutrition and safe space or targeted all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all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programs that can address, on a theoretical basis, the problems encountered by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Competency, Family Competenc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2020R1G1A1101810).

*Corresponding Author : Shon soonyoung(sy.shon@kmu.ac.kr)

Received March 10,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레 이야기해 왔다[1].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현대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이주민과 다르게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적, 인종적 소수자 집단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정착을 위해 결혼생활, 자녀양육, 가족관계, 보건의료, 건강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보호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배경이 되었다[3].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보도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정점에 달하던 2010년 10.8%에서 국제결혼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2019년 체류외국인수는 2,524,656명이며 그중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의 목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여성들은 138,5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전체 혼인건수 23만 9159건 중 다문화 혼인은 2만 4721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10.3%를 차지해 결혼 10쌍 중 1쌍 정도는 다문화 가정이다. 또한 출신 국가로는 베트남 39.4%, 중국 20.3%, 태국 8.3% 순이며, 총 국가 수는 11개국 이상으로 국적이 다양해지면서[4], 자녀의 양육, 문화의 차이, 생활 양식의 차이 등으로 다문화 혼인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다문화 현상에 부합할 만한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다문화 이민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섞인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6]. 각 문화에 대한 제도적 방침과 충분한 학습 및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은 많은 문제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문화 차이, 가족간의 갈등, 심리, 사회적 문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빈곤 등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는다[7].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취약하게 되면서 겪는 인종 차별, 편견, 이중언어의 사용, 생활적응 및 사회적응의 문제, 언어차이

로 인한 학습부진, 정체성의 문제 등을 경험하면서[8],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다[9].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자녀 교육의 어려운 점은 부모의 권한 기준의 모호하고, 과제 및 학습지도, 출신국과 다른 낯선 교육 관행, 가족 간 대화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문제는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행동문제, 자존감의 형성 등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11]. 이와 같은 현상의 지속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고립과 협력 등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된다[12].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 및 자녀의 교육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실제적 기술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인 측면과 문화적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 자녀의 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 초기에는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13]. 또한 한국 사회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언어교육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양육기술,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화 하였고[14], 자녀대상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및 언어교육에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문제, 자녀의 스트레스 문제에서 취약 후 학교생활, 학교적응, 진학 및 진로 교육으로 변화 하였다[15-19]. 먼저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에게 나타난 효과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 역할 만족도, 부모 효능감, 자아존중감,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20,21], 자녀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나타난 효과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적응 유연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2,23].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유의미한 향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의 개인적, 사회적 지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개인적, 사회적 기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수동적인 교육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요구도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이론 중심 교육과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고한 연구가 많았다[2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과, 방법, 단계, 효과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검증 방법도 다양하여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의 일관된 방향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및 문헌 분석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2010년에 연구된 최정혜의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가 23.1%로 높게 측정되었고, 한국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15.3% 그 외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교육에 관련된 문헌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문헌은 분석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25].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자녀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둔 부모와 자녀 관련 교육 연구의 방향성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HO에서는 자녀와 가족의 성장 및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정립한 개념인 Nurturing Care Model을 제시하였다. Nurturing Care Model은 건강, 안전, 영양, 조기학습, 반응적 돌봄의 다섯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역량강화를 시행할 때 본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녀의 돌봄뿐 아니라 가족이 주거하는 가정과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6].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본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된 문헌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동향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Nurturing Care Model의 속성에 따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는 향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기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체계적 고찰을 통해 증재 내용의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적용 효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속성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증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는 Cochrane collaboration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가이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27]. 본 연구의 진행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검색하는 문헌검색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의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연구에서 도출된 질문에 따라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자료 제시 단계이며 분석한 자료를 표로 제시 하였다.

1) 1단계: 문제인식

첫 단계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단계로 연구 문제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반적인 형식인 PICOS에 따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P)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다. 증재 방법은(I)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비교증재(C)는 교육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군이다. 결과(O)는 증재 결과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연구설계(S)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를 포함한 연구이다.

2) 2단계: 문헌 검색

연구 목적에 맞는 문헌고찰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증재를 적용한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내 데이터 베이스는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4u),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학술 데이터서비스(DBPia), 국회도서관(nanet)을 사용하여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 하였다. 핵심질문인 연구대상자와 증재로 주요 검색어를 선별하여 검색 전략을 구성 하였다. 따라서 검색어는 다문화, 가정, 가족, 교육, 프로그램, 자녀, 부모 등의 핵심용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다문화가정이 아닌 경우, 원문을 제공 하지 않는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 자료의 수량적 통합을 위해 질적연구, 사례연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헌검색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문헌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연구자 3인이 검색된 문헌을 기준에 따라 선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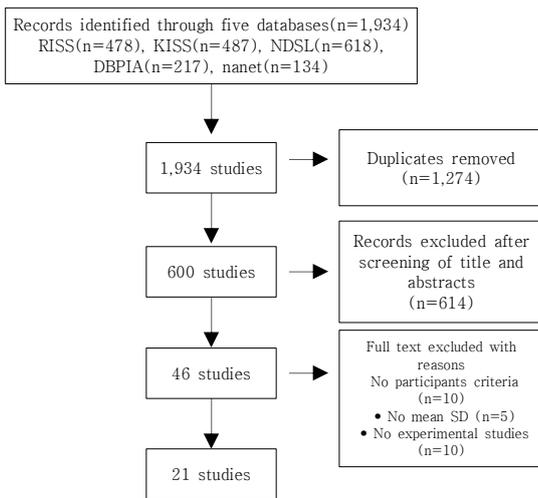


Fig. 1.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3단계: 자료평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에 대해서는 Cochrane ROB (Risk of Bias)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불완전한 결과자료, 무작위 배정순서의 비틀림, 참가자와 연구자, 배정순서의 은폐, 선택적 보고 및 비틀림 위험문제, 결과평가에 대한 눈가림으로 나타났다.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ROBANS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를 사용하여 문헌의 질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도구 문항은 대상 집단 비교가능성, 대상집단 선정, 평가자의 눈가림, 노출

측정, 교란변수, 선택적 결과, 불완전한 결과 및 결과평가 보고로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들은 각 문항별 낮음, 높음, 불명확으로 나타내었다.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3명이 문헌의 질 평가를 수행 및 검토하여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진행하였다.

4) 4단계: 자료분석

선정한 문헌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합성하기 위해 연구자 3인은 최종 선정된 21편의 문헌을 읽고 분석하면서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논의를 통해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였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문헌의 재검토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설계, 증재방법, 증재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자료 추출 형식을 엑셀 프로그램의 시트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5) 5단계: 자료제시

연구자 3인은 연구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변수와 주제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시하여 주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유형 확인을 위해 집락화, 대조와 비교, 공통성 등을 분석하였다. 저자 간 유형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재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논문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y 21 studies

Variables	Categories	n(%)
Type of Studies	Published Journal	21(100.0)
Publication Year	2010 ~ 2015	16(76.2)
	2016 ~ 2020	5(23.8)
Study Design	RCT	4(19)
	NRCT	17(81)
Target	Parent	8(38.1)
	Child	12(57.1)
	Combine	1(4.8)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만족한 21편의 문헌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다. 출판연도는 2010년에서 2015년 16편, 2016년에서 2018년도 5편이었고 2019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은 없었다. 연구설계는 무작위 실험연구 4편, 비무작위 실험연구 17편, 연구의 대상자는

자녀 대상 연구가 12편, 부모 대상 연구 8편이었으며 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1편이었다. 부모 대상 연구 중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그 외 5편은 모두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이었다.

3.2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증재프로그램의 속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대상 증재프로그램의 속성은 2017년에 발표된 양육 활동(Nurturing care)의 구성과 효과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속성은 건강(Health), 영양(Nutrition), 안전(Security and safety), 반응적 돌봄(Responsive caregiving), 조기학습(Early Learning) 다섯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28].

1) 건강(Health)

21편의 문헌 중 건강에 대한 문헌은 9편이 확인되었다. 정신적 건강은 8편이 문헌에서 확인되었고 신체적 건강은 2편에서 확인되었으며 그중 1편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모두 측정된 문헌이었다. 정신적 건강을 측정된 문헌 중 7편의 문헌이 자아 관련 척도를 평가하였으며 7편 모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우울, 스트레스 등을 측정된 3편의 문헌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건강을 측정된 2편의 문헌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2) 반응적 돌봄(Responsive caregiving)

반응적 돌봄을 측정된 문헌은 최종 8편으로 확인되었다. 양육 효능감과 양육 태도, 부모 아동 상호작용 측정된 문헌이 각각 3편으로 측정되었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된 문헌이 2편이었다. 또한 애착 안정성, 문제행동,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된 문헌이 각 1편으로 측정되었다. 최종 8편의 문헌 모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로 반응적 돌봄이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1편의 연구의 하위척도에서 양육행동 중 합리적 태도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조기교육(Early learning)

조기학습을 측정된 문헌은 최종 9편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를 측정된 문헌이 각 3편, 사회적 기술 2편, 문화적응태도가 1편이었다. 9편의 문헌 모두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기술, 문화적응태도의 향상을 보여 모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4) 영양(Nutrition), 안전(Security and Safety) 양육활동과 구성의 효과를 바탕으로 정의한 5가지 속성 중 영양, 안전 영역은 21편의 문헌 모두 두 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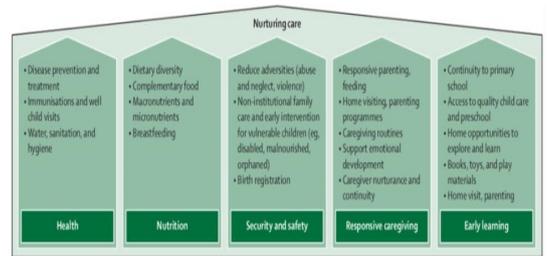


Fig. 2. Nurturing Care Model

3.3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증재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후 수행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도 조사의 근거자료의 유용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21개의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문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1,934편의 관련 문헌이 검색되었으나 문헌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1편의 문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3편의 문헌만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상자 모집이 어려우며 맹검법 적용과 무작위선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질 평가 과정에서도 연구결과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증재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인 증재 기간, 시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6편 이었고 연구 진행상의 제한점, 절차상의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문헌이 대부분이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로 진행될 수 없고 대상자의 특성상 유사 실험설계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유사실험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된 21편의 연구 문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발표 연도는 2010년 3편, 2011년 2편, 2012년 3편, 2013년 3편, 2014년 3편, 2015년 2편, 2016년 3편, 2017년 1편, 2018년 1편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자녀 대상 연구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 유아 대상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Studies

No	Author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Intervention				Outcome	category
			Exp (n)	Con (n)	Total (n)	Age (Year)	Program	Target	Session /Duration(Week)	Time		
1	Lee et al (2010)	NRCT	6	-	6	8-11	Combined Art Therapy	Children Mother	10/	90min	Self-Esteem Social Skills Parenting Efficacy	Health
			4	-	4				4/			
2	Choi(2010)	NRCT	7	7	14		Parenting Training	Parents	8/	90mi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elf Efficacy Children's Problem Behavior	Responsive caregiving
3	Kang et al (2010)	NRCT	12	-	12		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	Father	5/	100min	Self Esteem Parent Self-Confidence	Health
4	Min et al (2011)	NRCT	12	-	12		Parenting Training	Parents	8/-	-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Responsive caregiving
5	Kim(2011)	RCT	12	12	24	9-12	Dace and Movent Therapy	Children	12/	60min	Shrinking Depression Anxiety Adjustment to School Life	Responsive caregiving
6	Jung et al (2012)	NRCT	4	-	4	3-6	Parenting Support	Children Mother	15/	60 - 80min	Parenting Efficacy Maternal Behavior	Responsive caregiving
			4	-	4							
7	Lee et al (2012)	RCT	7	6	13	8-12	Group Art Therapy	Children	9/	60min	Ego-Resilience	Responsive caregiving
8	Shin (2012)	NRCT	20	20	40	10-13	School Adjustment	Children	-	8/-	Ego-Identity Peer Relationship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School Lives	Health Responsive caregiving Early learning
9	Kang et al (2013)	NRCT	7	7	14		Parenting	Parent (Mother)	12/	30-60min	Attachment Stability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Infant satisfaction with parent role	Health Responsive caregiving Early learning
10	Nam et al (2013)	NRCT	6	7	13	5-6	Group Art Therapy	Child Mother	10/	90min	Mother-Child Interaction	Responsive caregiving
11	Han(2013)	NRCT	10명	10명	20		Parent Empowerment	Parent	10/-	90min	parental satisfaction Marital adaption Marital satisfaction	Health Early learning
12	Im et al (2014)	RCT	12	12	24		Parent Education	Mother	10/-	-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 Social Competence	Health
13	Nam(2014)	NRCT	7	6	13		Art Cure	Children	10/	40min	School Life Adjustment	Health Early learning
14	Kim et al (2014)	NRCT	8	8	16		Group Counselling	Children	12/-	40min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Early learning
15	Lee(2015)	NRCT	12	12	24		Parent Education	Mother	10/	100min	rearing attitude	Early learning
16	Park(2015)	NRCT	41	42	83	14-16	Multicultural Youth Resilience Improvement	Children	10/	50min	Self-esteem Self-expression	Health Early learning
17	Oh et al (2016)	NRCT	7	9	16	8-11	Music Activities	Children	12/	50min	Self concepts Depression	Health
18	Jeong(2016)	NRCT	6	6	12	9-10	Virtue-associated Art Therapy	Children	10/	90min	School life adjustment child's behavioristic	Early learning
19	Yoon et al (2016)	NRCT	5	5	10	8	Song Psychotherapy	Children	14/	40min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Health
20	Park et al (2016)	NRCT	23	25	48	-	Physical Education	Children	8/-	-	Sociality Stress body composition cardiopulmonary endurance flexibility muscle endurance muscle strength power	Health Early learning
21	Roh et al (2018)	RCT	15	15	30	-	Taekwondo	Children	16/	60min	Socialbility	Health

편, 중학생 대상 1편이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아버지 대상 연구 1편, 부모 대상 연구 1편, 아동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의 연구에서는 모두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아버지와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학업성취, 문화적응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23] 중학생 이상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나 언어 사용의 어려움이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 대상 연구는 11편 모두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국내 부모교육과 달리 자녀 양육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부족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16]. 다시 말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닌 언어능력과 출신국의 문화적 지식을 자녀 교육에 활용하는 장점 중심의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큰 요인인 차별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방법을 다룬 내용은 볼 수 없었고, 사회적인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에 맞서 자신의 인권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인권교육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안전과 보안 문제를 다문화가정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인식과 편견을 없애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나 갈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 행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식생활 실태 조사와 한국 음식문화 지향성에 초점을 둔 식생활 문화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9]. 이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룬 후 한 가정의 식생활 책임자로 생활하는데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문화 차이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식생활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는 과정으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새로운 나라의 식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개인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그러나 식생활 적응은 이민자가 각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상호작용 과정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식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식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식생활과 직결된다. 올바른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의 건강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영양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및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0]. 또한 다문화가정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을 다루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으로 영양과 사회적인 안전 영역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측면을 통합한 증재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재가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수적 증가 및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증재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연구에서 이루어진 증재 기간, 증재방법 및 종속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연구의 증재 방법과 특정 종속 변수 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였다. 또한 연구자 3인이 자료 검색과정부터 합의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나 출판문헌의 편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증재 개발에 있어 건강, 반응적

돌봄, 조기교육, 영양, 안전의 영역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영양과, 안전과 관련된 교육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대 및 반복연구를 통한 연구의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전략은 이들의 상황적 특성과 교육 요구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대상 연구에서는 정신적 건강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부모 대상 연구에서는 양육반응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접근성과 관련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중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S

- [1] I. H. Cho & Y. S. Seoung. (2011). The Effec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Parents o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of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s.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 14(1), 73-89.
- [2] J. Y. Park & J. K. Ahn. (2014). Study of empowerment Factors of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based on Grounded theory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6), 981-997.
DOI : <http://dx.doi.org/10.5934/kjhe.2014.23.6.981>
- [3] S. H. Kim & Y. G. Noh. (2018). Influence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e*, 24(2), 174-184.
UCI(KEPA) : I410-ECN-0102-2018-500-004081552
- [4]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20).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in 20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 [5] S. J. Byun et al. (2016).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Focus on Nonmarital Cohabit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1-297.
- [6] E. Y. Jung & J. Y. Moon. (2019).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Optimism of 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1), 167-196.
DOI : <http://dx.doi.org/10.21330/kjmt.2019.21.1.167>
- [7] K. S. Chung, et al. (2012). The effects of a parenting support program based on Theraplay for mothers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6), 1-26.
UCI: G704-000666.2012.17.6.002
- [8] H. J. Park. & J. Y. Yang. (2020). Impa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 Based on Medit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8), 418-428.
DOI : 10.5392/JKCA.2020.20.08.418
- [9] J. E. Lee, et al. (2010). Preliminary Study on the Combined Treatment of Parent Education and Group Art Therapy for Multi-cultural Children'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853-864.
DOI : 10.17315/kjhp.2010.15.4.017
- [10] K. S. Lee. (2015).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rearing attitude of the Vietnamese immigrant women with young children.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8(1), 107-131.
DOI : <http://dx.doi.org/10.14328/MES.2015.3.31.107>
- [11] E. J. Kim, et al (2017).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arent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 for Multi-cultural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7(-), 217-253.
DOI : 10.16975/kjfs.2017..57.008
- [12] M. J. Kim. & K. E. Kim. (2019).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2(2), 35-60.
DOI : <http://dx.doi.org/10.14328/MES.2019.6.30.35>
- [13] H. A. Lee. (2020). Effect Analysis of the Fatherhood Programs Provided in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0(2), 143-175.
DOI : <http://dx.doi.org/10.35281/cms.2020.05.10.2.143>
- [14] J. Yoon. & E. J. Hur.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 775-798. DOI : 10.24159/joec.2017.23.6.775
- [15] K. Jang. (202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language network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5), 359-378.
- [16] J. Kwak. (2020). A study of schoo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ubtype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5(-), 165-188.
- [17] O. H. Bae. (2017). A Study on Supporting Measures for Children's Particip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Gyeongsangbuk-do. *Multicultural and Human*, 6(1), 31-66.
- [18] B. H. Lee & H. L. Lim. (2018).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3-25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8.16.3.013>
- [19] R. Lee (2018). Daily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Comparisons by gender and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561-569
DOI : 10.14400/JDC.2018.16.11.561
- [20] H. Yun & H. S. Choi. (2020). Career-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according to Parenting Efficacy Trajectorie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234-345. DOI : 10.5762/KAIS.2020.21.12.234
- [21] J. Y. Hwang. (2020). A Study on the Child-rearing Trends of Par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0(33), 131-160. DOI : 10.15400/mccs.2020.04.33.131
- [22] H. L. Chang & R. Lee. (2019).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0(47), 189-218. DOI : <http://dx.doi.org/10.20993/jSSW.47.7>
- [23] E. M. Park. (2015). The Effect of the Multicultural Youth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2(1), 37-54. DOI : 10.15284/kjhd.2015.22.1.37
- [24] E. Y. Cho & S. D. Lee (2019). A Meta-Analysis of the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407-425.
- [25] J. H. Choi (2010). 5.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Multi-cultural Family: published between 2005 and 2010. *Gyungsang National University*, 22(-), 79-98.
- [26] Britto, P. R., Lye, S. J., Proulx, K., Yousafzai, A. K., Matthews, S. G., Vaivada, T., . . . Fernald, L. C. (2017). Nurturing care: promot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The Lancet*, 389(10064), 91-102.
- [27] J. P. T. Higgins, D. G. Altman, P. C. Gotzsche, et al. (2011). *The Cochrane Collaboration's Tool for Assessing Risk of Bias in Randomised Trials*. *British Medical Journal*, 343(7829), 889-893. DOI : 10.1136/bmj.d5928
- [28] Black, M. M., Walker, S. P., Fernald, L. C., Andersen, C. T., DiGirolamo, A. M., Lu, C., . . . Shiffman, J. (2017).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oming of age: science through the life course. *The Lancet*, 389(10064), 77-90.
- [29] S. Song & H. Song. (2019). Dietary and Lifestyle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Status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ata from the 2017-2018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4(6), 465-475. DOI : <http://dx.doi.org/10.5720/kjcn.2019.24.6.465>
- [30] J. Y. Jung et al. (2020).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Nutrition Quotient and Their Changes in the Nutrition Knowledge and the Dietary Attitudes after Nutrition Education.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30(3), 208-218. DOI : 10.17495/easdl.2020.6.30.3.208

이 상 헌(Lee sang hun)

[정회원]



- 2018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20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간호학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다문화, 가족간호
- E-Mail : angels6830@naver.com

박 경 민(Park Kyung Min)

[정회원]



- 1993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박사)
- 1995년 8월 : Post-doctoral fellow, College of Nursing, Johns Hopkins University
- 1996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보건복지, 시뮬레이션교육, 가족간호
- E-Mail : kmp@kmu.ac.kr

손 순 영(Shon, soonyoung)

[정회원]



-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
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건강증진, 부모자녀관

계

· E-Mail : sy.shon@gw.kmu.ac.kr